

## 元曉의 언어관과 포스트모더니즘

이도흠

(한양대 교수)

### 사랑한다 말하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언어 없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 언어를 통해 자신의 뜻과 마음을 전달하고 타자와 소통을 하며, 언어로 사물을 드러내고 현실을 재현하며 세계를 지어낸다. 그런데 언어를 통하여 진리를, 세계의 실체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가? 없다면 인간 주체는 언어를 버려야 하는가? 원효는 언어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였으며 이것은 천여 년의 시공을 뛰어넘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어떤 차이를 갖는가?

인류는 오랜 동안 언어기호를 통하여 궁극적 진리를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비트겐슈타인도 처음에는, 자동차와 도로 모형으로 어제 일어난 사건을 그대로 재현하듯, 언어기호로 진리를 그대로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림이론’을 폈었다. 그러나 그는 언어로는 그럴 수 없음을 깨닫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라.”라고 말하였다. 현대 철학자들과 달리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언어의 확정성, 고정성과 동일성에 대하여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왜 언어기호로는 궁극적 진리를 드러낼 수 없을까?

무지개가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일곱 가지 색인가? 실제의 색은 무한하다. 무지개를 자세히 보면 빨강과 주황 사이에도 무한대의 색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리 하면 색에 대해 알 수도, 전달할 수도 없으니 이를 분별하여 무엇이냐 명명한다. 그러니 빨강과 주황만의 언어를 갖고 있는 언어공동체는 그 사이의 색을 보지 못한다. 유럽 사람들도 근세 초까지 무지개를 네 가지나 다섯 가지로 보았다. 주황이란 언어가 없으니 빨강과 주황을 같이 본 것이다. 딸절한 주황을 빨강이라 하면 이것은 허위이다. 그러면 주황을 주황이라 하는 것은 진실일까? 빨강과 주황을 더 자세하게 나누어 보는 자에게 빨강 다음의 색을 주황이라 하는 것은 허위이다. 범주를 세분하여 빨강을 ‘진한 빨강, 아주 진한 빨강, 극도로 진한 빨강’ 등으로 만 가지, 억 가지로 나눈다 해도 그것은 실제의 색에 이를 수 없다. 이처럼 세계는 무한대이고 카오스인데 사람들이 그러면 이해할 수도 전달할 수도 없으니 각자 문화적 맥락과 사고의 구조에 따라 범주를 나누어 세계를 코스모스로 바꾸었을 뿐이다. 빨강 색을 천 가지, 만 가지로 나눈다 해도 실제의 빨강 색에 이를 수 없다. 범주를 세분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범주일 뿐 세계 그 자체는 아니다. 범주에 따라 이름을 부여하니, 언어가 아무리 정교해지고 분화가 일어나도 세계 그 자체에 이를 수 없다. 그러나 “도라고 할 수 있는 도는 늘 도가 아니며 이름 부를 수 있는 이름은 항상 이름이 아니다(道可道非常道 名可名非常名)”이요, 말로 할 수 있다면 이미 그것은 진여실체(眞如實體)가 아닌 것이다. 분별심으로는 진여 실체에 이를 수 없다.

하버마스이 목적적 합리성은 비판하되 이성의 계몽적 힘은 중시하여 소통적 합리성으로 대안을 삼는 것과 달리, 탈현대 철학을 대표하는 데리다는 이성중심주의를 철저히 해체하고자 한다. “差延(différance)이 군림하는 왕국은 없지만 차연은 모든 왕국을 전복시키기 위하여 선통한다.”라는 말처럼 데리다는 차연을 통하여 그리스 철학에서 현상학에 이르기까지 서구의 모든 형이상학을 해체하려 든다. 차연이란 무엇인가? 불어에서 ‘différer’라는 동사는 ‘차이가 나다’와 ‘연기가 되다’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진다. 하지만 이의 명사형인 ‘différence’는 ‘차이’라는 뜻만 가진다. 이에 데리다는 ‘en’과 ‘an’이 모두

[æ:]으로 발음된다는 것에 착안하여 ‘e’를 ‘a’로 대체하여 ‘différance’란 단어를 스스로 만들고 이 낱말은 ‘차이’와 ‘연기’ 두 가지 의미를 다 함유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서양은 오랜 동안 실체론적 사고를 하였다. ‘나무’는 광합성 작용을 한다든가 탄소동화작용을 하기에 나무인 것이고, 나무는 그 스스로 실체, 본질, 이데아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무’라는 기호는 ‘나무’의 관념 내지 이미지를 지시할 뿐 현실의 나무는 現前하지 않는다. 즉 기호는 부재한 현전을 지시할 뿐이며 의미는 항상 연기되거나 달라져 있다. 세계는 언어기호를 통하여 표상할 수밖에 없는데 언어기호 자체가 본질이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무’는 스스로 아무런 의미도, 본질도 갖지 못한다. 나무는 ‘풀’과의 차이를 통하여 ‘목질의 즐거움을 가진 다년생의 식물’이란 의미를 드러낸다. 풀이 없었다면 나무 또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나무’의 의미는 풀과 차이를 통하여 ‘목질의 즐거움을 가진 다년생의 식물’이라고 규정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자유연상에 의하여 ‘푸르른 이상, 하늘과 땅의 중개자, 자연, 부드러움’ 등으로 의미망을 넓히고 나무를 정의한 글 속의 ‘목질, 즐거움, 가지다, 다년생, 식물’의 기표(signifiant) 또한 맥락에 따라 기의(signifié)의 사슬 속으로 끊임없이 미끄러지며 의미를 延期한다. ‘나무’가 ‘풀’과 대비시키면 ‘목질의 즐거움을 가진 다년생의 식물’이라는 의미를 갖지만 ‘쇠’와 대비하면 ‘자연, 목질의 부드러움’ 등의 의미를 갖는 것처럼, 각각의 기호에는 그 기호가 그것이 되기 위하여 배척하였던 다른 낱말의 흔적이 스미어 있다. 의미는 기호에서 직접적으로 현전되지 않는다. 기호의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는 기호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의미는 모든 기표의 연쇄를 따라서 散種(dissemination)되어 있다. 산종성이란, 씨니피앙과 씨니피에가 1:1로 대응하지 않으며 의미는 기호에서 직접적으로 現前(presentation)하지 않고 씨를 뿌리듯 흩어져 있음을 뜻한다. <‘나무’의 의미는 ‘목질의 즐거움을 가진 다년생의 식물’이라고 규정되지 않는다. 이는 자유연상에 의하여 ‘푸르른 이상, 하늘과 땅의 중개자, 자연, 부드러움’ 등으로 의미망을 넓히고 나무를 정의한 글 속의 ‘목질, 즐거움, 가지다, 다년생, 식

물'의 씨니피에 또한 맥락에 따라 씨니피앙의 사슬 속으로 끊임없이 미끄러지며 의미를 延期한다. '나무'가 '풀'과 대비시키면 '목질의 줄기를 가진 다년생의 식물'이라는 의미를 갖지만 '쇠'와 대비하면 '자연, 목질의 부드러움' 등의 의미를 갖는다.(전체 생략) “나는 최진실을 좋아한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치자. 왜 하필 최진실일까? 이 문장에서 '최진실'의 가치는 '고소영', '이영애', '김혜수' 등 이 문장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되살려 비교할 때 비로소 드러난다. 고소영과 비교하여 서구적 미인보다는 한국적 미인이기에, 심은하라 하지 않은 것은 미모가 아름다운 여인보다는 귀엽게 생긴 용모를 좋아하기에, 김혜수 대신 최진실을 선택한 것은 글래머보다 호리호리한 여자를 좋아하기에 최진실을 좋아한 것이란 구체적 사실들이 드러난다. 이렇듯 현전한 최진실의 가치는 부재한 고소영, 이영애, 김혜수 등을 되살릴 때 비로소 드러나며, 부재한 것은 김희선, 이승연, 전지현 등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므로 최진실의 의미와 가치는 확정되지 않는다. 이렇듯 기호에는 그 기호가 그것이 되기 위하여 배척했던 다른 낱말의 '흔적'이 깃들어 있다. 기호의 구조는 영원히不在한 他者の 흔적에 의해서 나타나며 의미는 現前과不在와의 끊임없는 교차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다. 의미는 어떤 하나의 기호에 의하여 완전히 현전되는 것이라기보다는 현전과 부재간의 일종의 끊임없는 교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7세기에 화쟁철학이라는 독특한 사상의 지평을 열었던 원효는 언어의 부재성과 신중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였을까? 반야와 유식을 화쟁의 논법으로 會通한 이답게 그는 언어의 空性を 부정하지도 긍정하지도 않는다.

사리불이 사되었다. 일체의 만법은 모두 문자와 언어인데, 문자와 언어의相은 곧 뜻이 되지 않으므로 如實한 뜻은 문자와 언어로 말할 수 없는 것이거늘, 지금 여래께서는 어떻게 법을 말씀하십니까?.....일체 만법이라는 것은 세간의 말로 세운 법이다. 진여의 법은 모두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문자와 언어로는 곧 뜻을 나타낼 수 없다. 모든 법의 진실한 뜻은 일체의 언설을 끊은 것이니, 이제 부처님의 설법이 만약 문자와 언어만이라면 곧 진실한 뜻이 없을 것이요, 만약 진실한 뜻이 있다면 마땅히 문자와 언어가 아닐 것이니,

이런 까닭에 ‘어떻게 설법하십니까?’라고 물은 것이다.(元曉, 『金剛三昧經論』)

석가모니께서는 왜 수많은 군중 앞에서 말씀을 안 하시고 꽃만 들었다 놓았다 하셨는가? 내가 진정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못한다.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100이라면, 아무리 미사여구를 총동원하여 장문의 연서를 쓴다 해도 거기에 표현된 사랑은 7, 80밖에 되지 않는다. 사랑한다 말을 하면 할수록 답답하고 사랑은 저 멀리 달아난 느낌일 것이다. 세계의 실체는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인간이 편의상 범주를 만들어, 혹은 분별을 하여 그렇게 이름 지어 부른 것이다. 그러니 이성과 언어기호로는 궁극적 진리에 다다를 수 없다. 언어기호로 표현하는 순간 그것은 그것이 아니다. 그러기에 眞如라고 말하는 것이다.

인간은 언어기호에 의하여 세계를 들여다보고 표상하며 전달할 수밖에 없는데 언어기호란 비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원효의 표현대로 自성이 없이 한갓 가명에 지나지 않아 참 지혜와는 떨어져 있다. 진리란 우리가 환상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환상이다. 그러니 진리의 본체를 근본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 오히려 畢竟空에 대한 인식이 진리의 본체를 드러내는 바이다. 이처럼 세계의 궁극적 실체는 不可言說이고 離言絕慮이며 불가사의하다.

## 지붕에 오른 뒤에는 사다리를 버려라

석가모니처럼, 내가 진정 깨달은 것을 말로 하면 왜곡이라는 생각에 강의실에 들어가서 서너 시간 동안 입을 꼭 다물고 하늘만 쳐다보다 나온다면 학생들은 “선생님! 오늘 깨달음이 많았습니다.” 라고 인사할 것인가? 한 두 학생은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생은 어리둥절해 할 것이다. 나의 의무는 강의실에 모인 모든 학생들을 깨우치게 하는 데 있다. 언어 저 너머에 진리가 있음을 알고도 매일 목청이 아프도록 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離言絕慮인 줄 알면서도 인간이 진리를 전달하는 보편적인 방법은 언어기호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럼 언어로 어떻게 언어 너머의 세계를 드러낼까?

어떤 학자는 원효의 화쟁의 본질을 “眞如實相이 언어 저 너머의 있는 것인

줄 알면서도 因言遣言(말로 인하여 말을 버림)하였다는 것”라고 지적하는 데 이는 화쟁도, 불교도 정확히 모른 데서 기인한 소치이다. 말로 말을 버림, 곧 인언견언은 불교철학에서는 공유된 상식이고 다른 철학에서도 종종 논의되는 바다. 비트겐슈타인도 “지봉(세계의 실체)으로 올라간 뒤에는 사다리(언어)를 던져 버려야 한다.”라 했다. 莊子도 『莊子』 「外物」 편에서 “물고기를 잡은 뒤에는 통발을 버려야 한다. 우리 인간의 말이라는 것은 뜻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그 뜻을 잡으면 말은 버려야 한다”라고 하였다. 『金剛經』 「正信希有分」에서 “강을 건너면 뗏목을 버려라”란 뜻으로 “너희 비구들이 나의 설법이 뗏목의 비유와 같음을 아는 자들은 범조차 마땅히 버려야 하거늘 어찌 허물며 법이 아닌 것조차 버리지 못하는가?”(汝等比丘 知我說法 如筏喻者 法尚應捨 何況非法)라고 말한 것도 같은 뜻이다. 여러 성인과 현인들이 궁극적 진리가 언어 저 너머(지봉, 언덕 저 편, 물고기)에 있으면서도 인간이 이를 전달하는 것은 언어(사다리, 뗏목, 통발)밖에 없음을, 대신 언어를 방편으로 이용하여 궁극적 진리에 이른 다음에는 언어를 버리고 세계의 실체를 대할 것을 천명하였던 것이다.

원효 또한 “네가 취한 것과 같은 것은 오직 名言 뿐이므로 나는 언설에 기대어 絶言之法을 제시한다. 이것은 마치 손가락에 의해 손가락을 떠난 달을 가리키는 것과 같다.”(『十門和諍論』)라고 지적한다. 이처럼 眞如(달)를 그 實相對로 언어기호(손가락)로 드러내는 것은 궁극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지시할 수는 있다. 존재를 실상으로 착각하는 중생들에게 그에 대한 깨달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언어기호는 한 방편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의 의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손가락을 통하여 달에 이르는가에 대한 것이다.

불가사의하다는 것은 부처님 말씀을 모두 이해하고 깊이 찬탄하는 말이다. 이 말 다음의 말들은 따로 이해하는 말로서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언어와 문구를 받아들이고 나중에 그 뜻과 이치를 헤아리는 것이다.(『金剛三昧經論』)

부처님의 말씀, 궁극적 진리는 너무도 깊어 우리의 이성이나 언어기호를 통하여 헤아릴 수 없기에 불가사의하다. 그러나 언어기호가 가진 지시적 의미를 받아들인 다음 이에서 머물지 않고 그 지시적 의미를 넘어서는 뜻을 헤아린다면 불가사의의 한 자락이라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원효는 先領言句 後領義理(먼저 언어와 문구를 받아들이고 나중에 그에 담긴 뜻과 이치를 헤아림)의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義語非文’이라는 것은 말이 마땅히 진실한 뜻에 맞아 단지 공허하게 문자에 얽매인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文語非義’라는 것은 말이 공허하게 문자에 얽매이기에 진실한 뜻과는 아무런 관련을 맺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부처님 말씀은 곧 뜻의 말이며, 뜻이 없는 범부의 말과는 같지 않은 것이다.”(『金剛三昧經論』)

祖師禪에서 스승이 체험으로 보여준다 하더라도 제자는 일단 그것을 언어로 풀어 언어의 테두리 속에서 고민을 한 다음에야 언어의 相을 넘어서서 견성체험을 한다. 看話禪은 언어로 된 텍스트를 바탕으로 한다. 그럼 언어기호가 眞如 實體에 대한 왜곡인데 언어를 통하여 이를 드러내고 전달해야 하는 역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어떤 뗏목을 써야 우리는 저 언덕 너머에 이를 수 있을까?

들에 홀로 핀 들국화를 외롭다고 노래하는 것은 시가 아니다. 내가 어떤 여인으로부터 연애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에 “당신이 없는 세상은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요, 금붕어 없는 어항이요, 팔 없는 찢빵이요” 식으로 쓰여 있는데 손을 부들부들 떨며 감동하여 그 여인을 만나러 달려가겠는가? 정반대일 것이다. 이 편지가 우리를 감동시키지 못하는 것은 ‘상투적’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文語’란, 일상언어의 속성에 집착해 낱말이나 문맥에 얽매이는 세속의 말, 상투적 의미로 언어기호를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

반면에 우리는 왜 좋은 시를 읽고 감동하는가? 우리는 그 시의 이미지와 언어를 결합하여 숨은 세계를 살짝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시를 방

편으로 삼아 숨은 세계의 실상을 잡시나마 엿본다. 이처럼 ‘義語’란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와 문맥을 넘어서서 세계의 실체를 파악해 드러내는 말을 이른다. 즉 문어는 세계를 왜곡하지만, 우리는 의어를 통해 세계의 실체에 다가갈 수 있고, 또 이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달의 실체를 완전히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달을 ‘지구의 위성’이라고 하는 데서 떠나 ‘관음보살’이나 ‘隱密顯了俱成門’이라 할 때 인간은 좀더 달의 실체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때문에 言語道斷과 不立文字로 언어기호의 空性を 부정할 것이 아니다. 언어기호가 세계의 실상 자체를 표현할 수는 없지만 중생이 세계의 실체에 다가갈 수 있도록, 더 정확히 말하여 중생이 존재를 세계 자체로 착각하고 있는 것을 깨우치도록 하는 방편은 될 수 있는 것이다. 굳이 비유하자면 장대가 장애이지만 장대를 통하여 땅의 굴레를 넘어 잡시나마 비상할 수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장대높이뛰기에서 장대를 이용하지 않으면 높이 뛰어올라 수 없지만, 장대를 놓아야만 하늘을 비상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하여 세계의 실체가 모두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세계는 드러내는 만큼 감추는 것 또한 사실이다. 앞에서 논한 대로 아무리 새로운 의미를 밝힌다 하더라도 언어기호로 말하는 순간 이는 세계를 왜곡시키게 되어 있다. 의어는 순간적으로 존재하며 아무리 실체를 밝힌 것이라 하더라도 곧 문어로 전락한다. 좋은 시가 시를 통하여 숨은 세계를 보여주지만 이것도 해독자들에 의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오아시스 없는 사막”처럼 곧 상투적 의미가 되어 다른 숨은 의미를 감춘다. 장대 높이뛰기를 하여 하늘에 오른 비상을 만끽하는 것은 잠시뿐, 설사 세계신기록을 세웠다 하더라도 우주에 다다를 수는 없다. 한번 하늘에 올랐다고, 세계신기록을 달성하였다고 눌러 앉아 있어야 하는가? 기록이 새로운 장애이듯, 깨달음이 곧 집착이 된다. 부브카가 혼자서 수십 차례 장대높이뛰기 세계 신기록을 갈아치웠듯 끊임없이 화두를, 깨달음을 해체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진리는 역사 안에서 진리이다

이처럼 원효는 탈현대의 사상가들과 통하는 언어관을 가졌으며 이를 넘어

선다. 더구나 원효의 화쟁 철학이 진정 빛나는 것은 대승과 화엄을 화쟁의 방법으로 아울러一心으로 귀결시키는 새로운 철학을 열었고 이것이 21세기에 도 현재성을 갖는다는 데 있지 않다. 원효는 누더기 옷을 입고 민중 속으로 내려가 박을 두드리며 그들을 해탈시키고자 한 것이다. 화쟁의 진정한 목적은 부처님과 중생을 하나로 아우르자는眞俗不二에 있다. 그의 머리를 빌어 포스트모더니즘(의 언어관)을 비판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인류는 처음엔 원자를 발견 것으로 알았다. 더 연구를 하면서 원자가 양성자, 중성자 등의 결합체임을 깨달았고 곧 이어 그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이제 쿼크와 같은 소립자가 더 발견되었다. 인류문명이 몇 억 년 더 지속되어 물리학이 계속 발전한다면 원자의 실체는 완전히 밝혀질까? 게놈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유전자 지도를 완성하면 생명의 신비가 풀릴 줄 알았다. 그러나 인간과 같은 고등동물과 생쥐와 같은 하등 동물 사이에 유전자 차이는 별로 크지 않았다. 그럼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차이가 나게 만들었을까? 유전자 지도는 유전자의 상에 지나지 않았다. 유전자 하나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었고 인간은 쥐에 비하여 고도의 복잡한 기능을 하는 유전자를 가졌던 것이다. 유전자공학은 유전자의 용을 밝혀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만난 것이다. 그 용을 다 밝힌다 해도 유전자의 體는 완전히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인간은 영원히 진리의 실체에 다다를 수 없다.

인간이 진리의 실체에 이를 수 없다면 인간은 무엇 때문에 살까? 허상을 실체로 착각하여 이데아를 추구한 데리다 이전의 후설, 하이데거, 사르트르, 마르크스 등은 모두 일거에 쓸어버려야 할 사상들인가? 삶의 목적은 완성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하여 나아가는 데 있다. 원자의 실체에 이를 수 없지만 연구를 진행시킬수록 우리가 점점 더 실체에 다가가는 것은 사실이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필자는 아내에게 종종 사랑한다는 말을 한다. 그래야 아내는 사랑을 확인하고 기뻐하니까. 깨달은 자라 할지라도 항상眞如門에 머물 수는 없다. 데리다라고 해서 침실에서조차 해체의 언어를 쓰는가?

진리는 역사 안에서 진리이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차이를 통하여 드러

나기 때문에 아무 것도 확정할 수 없다면, 진리란 끝내 알 수 없고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면, “지금 여기에서” 히틀러, 스탈린, 전체주의 등 악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을 비판하고 저항할 수 있는 근거와 지표는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글턴은 “우리는 해체의 미궁 속으로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회의주의적 인식론에 빠지고 만다.”라며 포스트모더니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비판한다.

그럼 대안은 무엇일까? 달의 의미는 “엄마얼굴, 조화, 쪽배, 관음보살……” 등으로 끊임없이 이어진다. 버스를 타고 지나면서 간판에서 ‘달’이라는 낱말을 발견하고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없다면 계속 물음표로 놓아두어야 하는가? 지금 마주친 현실에서 그 가운데 몇몇으로 울타리를 쳐야 할 것이다. 바르트가 말한 ‘정박(anchorage)’의 개념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언어를 우리가 행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실천적인 삶의 형식들과 뗄 수 없이 얽혀있는 것으로서 생각한다면, 의미를 ‘정할 수’ 있고 ‘진리’, ‘현실’, ‘지식’, ‘확실성’ 같은 단어들은 그 힘을 상당히 회복하게 된다.” 원자의 體에 영원히 다다를 수 없지만 지금의 연구보다 더 실체에 다가간 연구를 21세기 오늘 새로운 과학이라고, 그렇지 않은 것을 허위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장대높이뛰기로 우주에 이를 수 없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세계신기록을 넘어서서 높은 하늘에 이르는 자가 그 기록을 다시 깨는 자가 나타날 때까지는 가장 우주에 다가간 사람이다. 나무가 풀과의 ‘차이’를 통하여 “목질의 즐거움을 가진 다년생의 식물”이란 의미를 갖지만 지금 내게 저 나무가 그토록 소중한 것은 그 나무에서 어떤 스님의 설법을 듣고 깨우쳤다는 ‘역사가 스미어 있기 때문이다. 차이와 역사, 공시성과 통시성, 주체와 구조는 둘이 아니라 하나인 것이다.

씨니피앙을 따라 씨니피에가 마음대로 미끄러질 때 우린 끝없이 자유로운 활강의 황홀감을 만끽할 수 있다. 하지만 거기엔 현실은 없다. 의미를 정박시킬 때 발을 디디고 있는 구체적 현실을 바탕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삶의 충만함이 있다. 하지만 거기엔 의미의 파노라마가 없다. 언어의 의미를 열어두는 동시에 닫고 닫는 동시에 여는 것, 바로 이것이 원효가 피력한 회통의 언어관이다.